

어린이 책꽂이

▲나의 큰나무=도시에서 사는 한 아이의 소중한 친구인 나무를 소재로 한 동화.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낸 큰 나무가 사라져 좌절해 있던 주인공이 다시 작은 나무를 통해 희망을 갖는 다는 이야기가 몽클한 감동을 준다.
(웅진 주니어·8천500원)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주인공 지미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보내달라자는 편지를 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받고 싶은 선물이 많아져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가 많아진다. 과연 산타 할아버지는 지미의 소망을 들어줄까?
(큰북·작은북)



▲몸속여행=우리 몸속의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쉬운 그림과 함께 설명한 과학책이다. 종이를 펼쳐 보고 넘겨보는 플랩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숨어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듯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시공주니어·1만3천원)



▲마더 테레사가 들려준 이야기='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불린 마더 테레사(1910~1977)수녀가 생전에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 11가지 이야기를 엮은 그림책. 작고 소박한 이야기들이지만 아이들에게 사랑과 친절이 세상을 얼마나 더 따뜻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지 가르쳐 준다.
(두레 아이들·8천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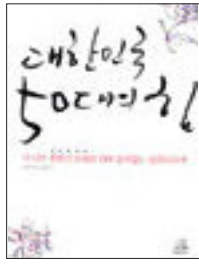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전야 밤, 너도 보이니?(제4편)=세계 여러나라에서 번역돼 수백만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 셀러 '너도 보이니' 시리즈. 수만가지 실물 수집품을 이용한 숨은 그림찾기책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준다.
(달리·9천500원)



“희망의 ‘끼’ 세대 험한 세상 다리돼라”

대한민국 50대의 힘 탁석산 지음

공자(孔子)는 논어(論語)에서 50대를 '지천명(知天命)'이라 했고, 유대의 가르침을 전하는 탈무드에서는 50대를 '상답을 해줄 나이'라고 했다. '지천명'이란 하늘의 원리를 안다는 것, 즉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자들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상답'이 가능해진다. 100의 절반, 50이라는 나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철학자 탁석산씨는 50대를 '모든 것의 중간에 서 있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특히 한국의 50



대는 더 그렇다. 통일의 문제만 보더라도, 본단의 당사자도 아닌 것이 통일의 주체도 아니다. 또한 학연·지연·혈연에 얽힌 사회에서 선배를 깰듯이 모셔왔으나 이젠 한국적 관계들이 붕괴되고 있어 더 이상 선배 대접을 받기 힘들게 됐다. 한마디로 '어중간하게 낀' 세대인 것이다.

탁씨는 '대한민국 50대의 힘'을 통해 우리나라 50대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 수직 사회에서 그물망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50대가 중심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내민 50대 중심론의 근거는 이렇다.

“첫째, 자연 연력으로 볼 때 모든 세대를 연결하기에 적당하다. 둘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 셋째, 실천의 힘을 가진다. 넷째, 더불어 살기를 이미 실천해왔다. 다섯째,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빛이 없다.”

인간 이해 폭 넓고 실천의 힘 가진 50대

사회통합의 중심에 서야

적인 경쟁을 이끌었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지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성보다 안정과 출세 그리고 억척에 익숙한 세대는 아니다.

70년대 대학을 다닌 이들은 민주화 운동과 경제 성장 사이의 갈등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386세대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했다 하더라도 상대를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50대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주류에서 밀려 있는 것은 정치로 단련된 80년대 학번, 즉 386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50대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폭넓은 이유는 '소셜을 읽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는 고난 때문에 소셜을 읽을 여유가 없었고, 후배들은 사회서적을 읽었으며, 자신들은 영화를 즐긴다. 소셜 속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이같은 주장을 끌어내기 위해 의사, 영화인, 농부, 국회의원 등 한국의 50대 10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을 풀어간다. 이들과 함께 나는 자식, 인생, 일, 성공 등의 일상적 이야기와 이를 토대로 쓴 책은 바로 대한민국의 50대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랜덤하우스·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위대한 성악가들의 삶은 어떠했나

불멸의 목소리 유휘종 지음

마리아 칼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 세계 음악계를 주름잡은 위대한 성악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오페라 동호인들과 함께 음악 공동체 무지크 바움을 결성, 운영을 맡으며 음악전문 칼럼니스트와 공연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휘종씨가 펴낸 '불멸의 목소리 1, 2'는 내로라하는 성악가들의 삶과 음악적 업적을 생생하게 그려낸 역작이다.

남성 성악가를 다룬 1권에는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와 한스 호터 등 25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여성 성악가 주인공인 2권에는 마릴린 훈, 조운 서덜랜드,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등 25명의 삶과 인생이 실려 있다.

각권의 말미에는 성악가들의 대표 아리아가 실려 있으며 부록으로 32명의 음악이 실린 음반 2장을 증정한다.

<시공아트·각권 1만6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씨없는 수박' 우장춘 박사의 생애 그려

그 남자의 아들... 이남희 지음

소설 '플라스틱 섹스'와 '사십세'의 중견작가 이남희씨가 '씨없는 수박'으로 잘 알려진 우장춘 박사의 생애를 그린 장편소설 '그 남자의 아들, 청년 우장춘'을 썼다.

우리는 수학 공식처럼 '씨없는 수박'하면 '우장춘'을 떠올렸을 뿐, 우장춘의 일생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던 게 사실이다. 저자는 우장춘의 업적 뒤에 가려진 복잡한 가족사와 그로 인한 갈등, 번민 등 삶의 이면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우장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이후 고아원에 맡겨진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깊이 간여했던 아버지의 과거, 이로 비롯된 연인과의 이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겪어야 했던 정체성 혼란, 조국의 농업 근대화에 헌신했지만 정권의 선전도구여야 했던 처지 등 우장춘의 고뇌가 묘사된다.

<창비·9천5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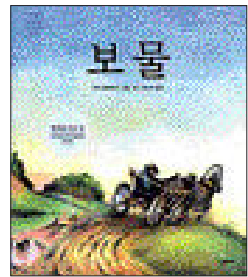
유리 슬레비츠 '보물'

그림책은 알파벳이다. 글보다 그림으로 채워져 있고, 이야기보다 복잡하지 않다. 그런데 값은 만만치 않다. 바로 그런 까닭에서 그림책은 어린이의 전유물로, 선뜻 사기 가까운 책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그림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이야말로 책의 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나는 묘사에 군더더기가 많고 이야기 핵심을 놓칠 때마다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는다. 그림책은 간결해지기, 분명해지기, 깊어지기를 가르치는 교과서이다. 나는 그림보다 글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림책 가운데서도 이야기가 분명한 경우에 더 매력을 느끼는데 근래에 읽은 '보물'(유리 슬레비츠 글·그림), '마지막 거인'(프랑수아 플라스 글·그림)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얻었다.

두 작품은 다른 방식으로 '소중한 것'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작가 자신이 직접 그리고 글까지 완성해 넣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작가의 사고를 어떤 경우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 유리 슬레비츠는 부드럽게 번지는 색과 유연한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 바탕에 매우 절제된 표현을 곁들였고, 프랑수아 플라스는 섬세한 펜으로 꽤 사실적인 그림과 충분한 서사를 대담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전자는 간결한 표현 때문에 의미가 더욱 분명하고,

간결한 '언어의 그림'



후자는 정교하고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의미가 더욱 깊게 느껴진다.

'마지막 거인'은 거인의 어머니를 손에 넣은 학자가 거인의 흔적을 찾아 모험을 떠나고, 결국 거인을 만나고 돌아와 그들의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이야기다. 또한

학자로 인해 거인의 세계가 초토화되고 학자의功名심에도 철퇴가 가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다. 소중한 것을 대하는 자세에 관해 진지하게 표현한 이 책은 그림책의 독자가 유치한 어린이들이라는 편견을 단번에 바꿔버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보물'은 이보다 더 알파벳과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 옛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어 글을 모르는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책장을 덮고 나서 소중한 것을 찾은 듯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있었다.

어렸을 때 읽은 처트치트와 미치트 이야기가 떠올랐다. 보물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노인이 결국 자신의 아궁이 밑에서 원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다'는 교훈을 들려주는 방식이 아이에게는 쉬운 이야기로, 어른에게는 오래 음미할 맛으로 갖추어져 있으니 매력적이고 부럽고 한결 속상하다. 부드러운 그림 바탕에 군더더기를 발라 버린 언어 몇 줄 걸여 두고도 독자의 다양한 경험을 건져 올리고 있으니 유리 슬레비츠는 아주 멋진 언어의 그림을 짜는 데 명수다.

요즘 내 동화에는 군더더기가 자꾸만 들려붙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쓰리다. 군더더기가 많다는 건 될 것 없는 착하는 나쁜 습관이 나타난다는 것임을 아는 까닭이다. 나는 늘 유리 슬레비츠처럼 간결해지고 여유롭고 분명해지기를 소망한다.

황선미 <동화작가>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 배움 한국최대 합격률 배움

주말반 1, 2, 3

광주고시학원

2007년 제18회시험 **공인중개사 특강**

www.lawbig.co.kr

전남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한국수석합격자 배출 13, 14회 한국 최대 합격자 배출 학원

1월 2일

새빛 행정고시학원

해방!!

www.lawbig.co.kr

1577-8682, 011-625-6097